

❖ 주제 곡

본 기도 Вступительная молитва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
게 베푸신 자선도 주님께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나
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어려움을
늘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
의 상을 얻게 하소서.

시편 13 Псалом 13

1. 주여, 언제까지 나를 영영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 /하시렵니까?
2. 밤낮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
까?
3. 주, 나의 하느님, 굶어 살피시고 대답해/주소서.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이 눈에 /빛을 주소서.
4. 원수들이 이겼다고 뽐/을 내며
적들은 기뻐하며 날뛰 /것입니다.
5. 나는 주님의 사랑만을 믿/습니다.
이 몸 건져주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
6.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주님께 찬미 /드리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 연중 14주일(7월 5일) 전례 담당자

1 독서 : 즈가 9:9-12 _ 허소영 마리아
2 독서 : 로마 7:15-25상 _ 지현탁 레오
성 시 : 시편 45
복음서 : 마태 11:16-19, 25-30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정세환 세례자요한
집전, 설교 : 유상신 베드로



감사성찬례 I형식, A곡, 성찬기도 I양식

집전 : 유상신 베드로, 설교 : 김문영 키프리안

❖ 개회예식 Вступительный обряд

입당 Входной гимн _ 성가 559장

죄의 고백 Исповедание грехов _ 다함께

기원 송가 Вступительный гимн _ 거룩하신 하느님

❖ 말씀의 전례 Литургия слова

본기도 Вступительная молитва _ 집전자

1독서 _ 예레 28:5-9 _ 이우수 힐데가르트

성시 Псалом _ 시편 13

2독서 _ 로마 6:12-23 _ 동소신 에스더

복음 IEвангелие _ 마태 10:40-42 _ 집전자

설교 проповедь _ 김문영 키프리안

니케아 신경 Никейский символ веры _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молитва _ 정문균 바울로

❖ 성찬의 전례 Евхаристическая литургия

평화의 인사 Приветствие мира _ 다함께

봉헌 Приношение даров _ 성가 622장

성찬기도 Евхаристическая молитва _ I양식

거룩하시다 A(p.71) / 하느님 어린양 A(p.72)

영성체 Причастие _ 다함께

* 특송 _ 빛과 소금 청년회 _ ‘주를 바라보며’ 외

❖ 파송예식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обряд

파송 посылание _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마침 окончание _ 성가 342장

성공회 강릉교회

St. Francis Anglican Church of Korea

강원도 강릉시 초당원길 49

Since 2015. 4. 21.

산본, 강릉교회 연합 감사성찬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당신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8:28)



연중 13주일, 가해

2026년 6월 28일

❖ 서울교구 표어 ❖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요한 13:34)

❖ 강릉교회 표어 ❖

“기도와 훈련, 나눔과 실천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는 교회.”

1. 매일 기도하기.
2. 피정과 신앙훈련 프로그램 참여하기.
3. 어려운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신앙인 되기.

❖ 교회소식 Церковные объявления

◆산본교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거룩한 친교 안에서 양 교회 간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산본교회에서 초대해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 애찬 장소 : 초우당 막국수(교회 100m 근처)

◆세실대학 7기 신입생 모집

세실대학은 서울교구 신자 사역자 양성 과정으로 총 4학기 동안 깊은 사목 강의와 훈련을 통해 전문 사역자로 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대에 마련된 포스터를 참조하십시오.

◆세례 교리교육

애찬 후 세례 교리교육이 있습니다.

◆주보글 모집

주일 본문 묵상 혹은 신앙 경험을 담은 글을 공동체와 나누어 주십시오.(보낼 곳 : 유신부 카톡)

◆봉헌 안내

일반 : 농협 351-1110-9198-13

특별 : 농협 351-1301-2022-93

피정 집 : 농협 351-1009-9505-43

◆지난 주일 감사성찬례 참석자

총: 22명 (영성체: 22명/어린이, 청소년: 2명)

❖ 섬기는 이

✦ 서울교구장 _ 김장환 엘리야

✦ 관 할 사 제 _ 유상신 베드로 / 010-6852-7642

✦ 신 자 회 장 _ 김주선 니콜라

✦ 교 회 위 원

정문균 바울로(총무), 정세환 세례자요한(선교)
강경화 케이트(교육), 정영희 리디아(전례)



1분 교리

성공회 산본교회는

1995년 부터 시작된 교회 개척 기도회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산본 신도시의 성장과 함께 지역에서 주님의 선교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성장해 왔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지역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꿈꿉니다.'는 선교 목표 안에서 예배와 교육, 기도와 봉사로 공동체의 신앙을 다지며, 밖으로는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으로 '환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제 8대 관할사제로 김문영 키프리안 신부가 재직 중이며, 신자회장직에 최용욱 어거스틴 교우가 봉사하고 있다.

교회; 환대의 공동체

공동체의 환대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상대방의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환대에 제외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공동체는 손님을 맞으며, 그가 품고 왔을 하느님을 향한 열망을 함께 보고 느낍니다. 성공회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환대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 겪어야 했던 아픈 시행착오와 실수도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환경,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형성된 신앙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나 이념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비극을 초래하곤 합니다. 분열된 관계, 닫힌 마음, 냉담한 시선, 상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일에서 우리는 환대를 모르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공동체의 일그러진 모습을 함께 봅니다. 교회는 주님 희생의 자리 위에 세워진 사건이고, 그 역사는 그 희생이 생명을 불러일으킨 시간입니다. 교회가 매순간 자기 정체성을 '환대 공동체'로 여긴 이유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언자적 환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언자적 환대란 하느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이들을 우리가 편견 없이 만나는 일입니다. 필연코, 하느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는 예언자적 부름 안에 있는 사람입

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그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를 환대할 때, 우리의 시선은 하느님의 진리를 보는 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볼 줄 아는 시선,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시선, 상대방의 열망을 알아보고 변화를 바라는 영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때마다 신앙인의 이러한 식별 능력은 공동체 전체를 가장 복된 길로 들어서게 해줍니다. 하느님을 증언하며 그분의 정의를 외치는 이들이 가진 그 예언자적 당당함은 한정된 몇몇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느님 앞으로 부름 받은 모든 신앙인이 예언자이자 동시에 예언자를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이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도 제자입니다. 열망을 품고 공동체를 찾아오는 이들도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공동체의 환대는 그들도 우리처럼 이곳에서 타오르는 영적 갈증을 풀어 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한 환대 경험이 그들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환대가 상대 뿐만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예언자로 초대됩니다.